

우상의 왕국 태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2333/3 Theparak Soi 66, Theparak Rd., Muang, Samutprakan 10270 Thailand  
 E-mail : [pakmogsa@hanmail.net](mailto:pakmogsa@hanmail.net) 카톡ID : pakmogsa  
 ☎(001)-66-81-814-5968(박영성), (001)-66-84-705-6623(정세미)  
 후원 계좌:010-04-06389-795(하나,GMS). 129-12-012484(농협,박영성). 3333-04-9523013(카카오뱅크)

## 태국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 2026년 07월-08월 선교편지

할렐루야!

존경하며 사랑하는 태국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상하의 나라 태국의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이 더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동역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월, 8월은 한국의 여름방학과 휴가철로 인하여 많은 단기 선교팀이 태국을 다녀갔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사랑과 수고가 태국에 많은 결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 대구복일교회 단기선교팀.



대구복일교회(담임:김대경 목사, 선교위원장:황홍규장로)는 매년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선교를 위

해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금년에는 약38명의 단기팀이 쌍쌍왕교회와 쌍카부리교회를 방문하고 쌍쌍왕교회를 중심으로 성경학교와 세례식을 거행하고, 많은 선교물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한국 기독교 기업인 선교회 태국방문.

기업인 선교회(지도목사:이득선목사, 회장:이재섭집사)는 금번에 처음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업인 답게 태국선교사, 태국교역자, 산족교역자 등 100명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각 가정들을 위한 많은 선물과 선교비를 준비해 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기업인 선교회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상의 왕국 태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2333/3 Theparak Soi 66, Theparak Rd., Muang, Samutprakan 10270 Thailand  
 E-mail : [pakmogsa@hanmail.net](mailto:pakmogsa@hanmail.net) 카톡ID : pakmogsa  
 ☎(001)-66-81-814-5968(박영성), (001)-66-84-705-6623(정세미)  
 후원 계좌:010-04-06389-795(하나,GMS). 129-12-012484(농협,박영성). 3333-04-9523013(카카오뱅크)

## 태국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 2026년 07월-08월 선교편지

### 태국 어머니날 행사.

매년 8월12일은 태국의 어머니날입니다. 이날은 태국인들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해서 지역별로 많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우리 롬프라편교회는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교회를 한 번이상씩 방문한 어머니들과 성도들의 어머니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어머니들을 위로하였습니다.



### 롬프라편교회 리모델링 작업.



교회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산교회(담임:김영한목사)강영자권사님의 헌신으로 은행융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및 상.하수도 공사등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는 외벽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산교회와 강영자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E.F.T(태국복음주의총회) 총회장 및 총무와 함께 한국방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장봉생목사)의 초청으로 우리와 대부분의 GMS선교사들이 속해있는 E.F.T(태국복음주의연맹 총회)의 총회장(감쌍목사)과 총무(쑤윗목사)를 모시고 9월 16일(수)-18일(금)까지 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를 잘 소개하고 총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영성선교사 한국전화:010-3756-5968)

### 기도제목

1. 롬프라편(축복)교회의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순적하게 이루어 지도록.
2. 단기선교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태국 땅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도록.
3. E.F.T 총회장과 총무가 한국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4. 22개의 개척교회와 12명의 축복의 집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장하도록.
5. 축복선교회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를 보내 주옵소서.
6. 박영성.정세미 선교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아들 진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6년 08월 31일

태국에서 사랑의 빛을 진 박영성.정세미.진수 선교사 드림.